

↑ 코스피 2418.86 (+1.78)	↓ 코스닥 681.56 (-8.09)
↓ 금리 (미국 3년) 2.929 (-0.010)	↓ 환율 (한·달러) 1403.70 (-2.90) (14일)



Economy

하나금융그룹

당국, 환율 구두개입

“변동성 확대 시 적극 대응조치”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 및 주가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원화약세를 더는 방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국의 사실상 구두개입이다.

최상목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美 신정부 영향, 불확실성 상존
합동점검체계 중심 시장점검 강화
2025년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장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 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 7000억 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커버스토리

3년후 전세계 IDC 40%, AI發 전력난 온다

〈인터넷데이터센터〉

전기먹는 하마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 빠른속도로 확장
AI서버 필요전력 연간 500TWh
서울 전체가구 소비량 10배 이상
요구전력 생산 인프라 구축 부족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도입 열풍으로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40%가 전력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고성능의 반도체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다. 또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전력난이 가속화 한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글로벌 시장 조사가구 가트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이미지.

는 2027년 데이터센터가 AI 최적화 서버 운영을 위한 필요 전력이 연간 500TWh(테라와트시)로 2023년 195TWh 대비 2.6배에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Wh는 1000GWh로 1GW는 1시간 가동하는 동안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2022년 기준 연간 서울 410만 가구 전력 소비량은 4만 8789GWh다. 즉, 2027년 AI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 사용량은 서울 전체 가구 소비량의 10배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가 유독 타 데이터센터 대비 높은 전력 소모를 보이는 데에는 최고성능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고전력 하드웨어를 활용해서다.

여기에 더해 고전력 반도체 등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열을 식하기 위한 냉각 과정이 더해지며 전력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 AI의 고성능화가 방대한 학습에서 비롯하는 만큼 끊임없는 학습과 활용범주가 넓어지며 연중무휴로 가

동한다는 점 또한 높은 전력을 소비한다. 일반 가정용 또는 기성 공단 지역 전력 소모량을 압도하는 만큼 AI 데이터센터는 별도 전력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비상시를 대비한 발전도 구 또한 필수다.

밥 존슨(Bob Johnson)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한 신규 하이퍼스케일(초대형급)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며 전력 공급업체의 용량확장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가용성을 저해하고 전력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트너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외 용도의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도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국·수·영 작년보다 쉬워... 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관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핵심·기본적 내용 중심
다양한 난이도 문항 고르게 출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킬러)문항’은 없이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학의 경우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평가가 나오면서, EBS 수능특강 강사진과 다소 평이 엇갈렸다.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올해 수능이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 8082명 늘어난 52만 2670명이다. 이중 졸업생 응시자는 16만 1784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최종철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출제 경향브리핑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라며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되, 변별력은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EBS 수능특강 강사진은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수준의 지문이 출제됐다”라며 “지문 정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경기도 부천시 상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사장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량이 적정하고,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돼 배경지식에 따른 독해의 유불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학 영역의 EBS 수능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교사단은 예상했다.

입시업계도 지난해보다는 쉽고, 기본적 변별력 확보는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작년 수능 국어 영역은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 국어도 결코 쉽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수학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상위권 변별력을 두는 EBS와 입시업계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EBS 교사단은 “‘공정수능’ 출제 기조 이후 처음 출제된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라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일부 문항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돼 변별력 또한 확보됐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수학 영역의 최상위권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기하는 지난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반면, 선택과목 중 확률과통계는 지난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 개념을 다루는 문항은 배제하고, 지문과 선택지의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게 EBS 교사단 평가다.

/이현진 기자 ihj@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고려대·국민대 교수들 “국정농단 심각,尹 퇴진해야”
▲ 홍준표 “한동훈, 지지율 고작 10%대 창피한 줄 알아라”

▲ 정부, 북한군 전투 투입에 “원칙에 따라 단계적 대응”
▲ ‘한-쿠바 수교 일조’ 한택진 등 4명에 해오 외교관상 수여



▲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국 “한동훈 요구 반영해 제3자 특검 추천... 수용해라”

이마트 ‘본업 강화’ 전략 통했다… 3년만에 분기 최대실적

3분기 영업이익 1117억, 43% ↑
매출 줄었지만 순익 424% ↑

가격과격·직소싱 전략 등 성과
SSG닷컴 등 자회사 수익 개선

이마트가 2024년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117억원을 달성하면서 3년 만에 분기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7조50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9% 급증했다.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3%, 11.4% 증가한 4조6726억원, 12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합병한 에브리데이의 3분기 총매출 3699억원, 영업이익 63억원 실적이 포함될 수 있다.

◆‘가격-상품-공간 혁신’ 본업 경쟁력 강화, 실적 상승 원동력으로 이어져

이마트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고객이 가장 필



스타필드 마켓 죽전 전경.

/이마트

요로 하는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가격과격 선언’, 직소싱과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 등 이마트의 유통 노하우를 총동원해 50여 개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인 ‘가격역주행’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다.

여기에 스타필드 마켓 죽전과 같은 이마트의 공간 혁신 리뉴얼 작업이 기존 고객의 방문 증가와 함께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하며 영업 이익 증대에 힘을 보탰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3% 증가한 9652억원,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3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개 분기 누적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871억원에 달했다.

전문점 사업 또한 노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 위주의 구조 개편이 성과를 내며 3개 분기 연속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온·오프라인 주요 자회사들 수익성 강화

SCK컴퍼니·SSG닷컴 등 온오프라인 자회사들 역시 수익성이 개선됐다.

먼저, 스타벅스는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66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아이스 음료를 중심으로 한 매출 호조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률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SSG닷컴 역시 광고 수익 증가와 마케팅비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 손실이 307억원에서 165억원으로 142억원 감소했다.

조선호텔엔리조트는 1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했고, 신세계푸드는 사업 구조 개편 등 경영 효율화로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늘어난 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편의점 이마트24도 영업손실이 지난해보다 31억원 감소한 1억원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 개선 이어 나간다

이마트는 향후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한층 고도화해 성장 모멘텀을

다지는 한편, 비용 절감과 투자 효율성 제고로 수익성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할인점 부문에서는 가격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 중심의 상품 혁신을 지속해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로서리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도입하고, 고객 중심의 공간 혁신 리뉴얼을 지속해 객수 증가와 매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마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의 3사 통합 매입과 물류센터 재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주도권 확보와 상품 혁신, 고객 중심의 리뉴얼 등 본업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의 원동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본업에 초점을 둔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尹, APEC서 한일 정상회담 “책임외교 구현” 부동산 PF 자기자본 5%→20% 확대

후반기 외교일정 시작… 페루 출국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 동행 안해
한미일 회담서는 공조 제도화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임기 후반기의 시작을 외교 일정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제31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21시간 20여분간 비행 후 같은 날 저녁(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와 한-페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회의일정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만난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두 번째,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APEC을 계기로 열리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이번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3국간 역사적인 협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만든 진전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일 3각 공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뤄져 관련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별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남미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순방은 5박 8일의 일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인해서 몇일 몇시에 귀국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비해 지속해서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정부, 제도개선방안 발표
자기자본비율 3년간 단계적 강화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관행 개선’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서 20%로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으로 부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PF사업은 토지에 주택·건물 등을 지을 시 발생하는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기법이다. 현재 부동산PF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약 70%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PF 대출사업성 평가강화 ▲한국형 디벨로퍼(developer) 육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2026년 10%→2027년 15%→2028년 20%로 확대한다.

현재 PF사업을 진행할 경우 땅을 매입하는 비용은 30%, 그 땅에 주택·건물을 짓는 비용은 70%다.

지금까지 PF사업자는 토지매입비용의 3%만 있으면 나머지 토지매입비용의 27%를 브릿지대출로 충당했다. 브릿지대출은 사업자가 주택·건물을 짓기 전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땅만 다지다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PF 시장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시행사(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는 모습.

/뉴스1

설사)·시공사의 담보규모와 신용도에 의존해 대출을 공급했다.

정부는 PF사업성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을 설립한다. 금융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PF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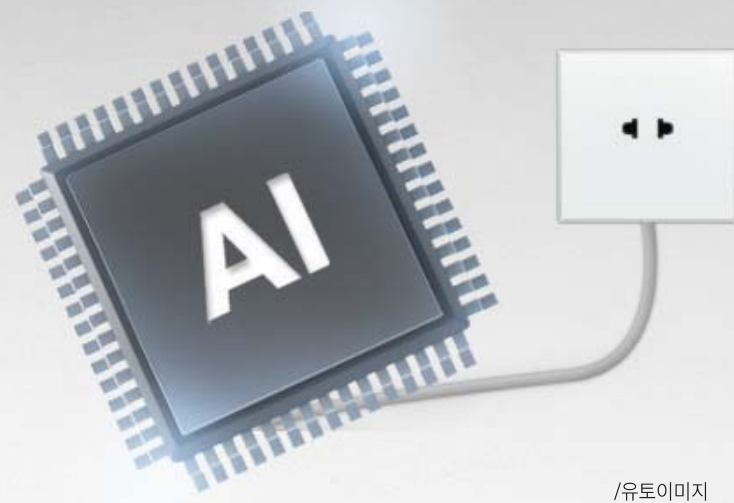
시행사가 책임준공을 못할 시 시공사가 채무인수 등을 부담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시공사는 전쟁·천재지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이유로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PF사업장의 추진현황을 볼 수 있도록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까지 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현황정보를 축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류토지의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개발시장의 경기가 활력을 띄게 되고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리츠를 활성화해 종합부동산회사 성장을 지원하고 우량사업에 국민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AI 훈련 소비전력 3개월마다 2배 ↑ 청정에너지·고효율 ‘게임체인저’ 부상



/유토이미지

전력난 현황·대응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난이 다가오고 있다. 기정사실화 한 AI 발(發)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반도체 등 전력 소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과 연중무휴 운영가능하고 탄소 배출량을 급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필요하다. 더불어 AI발 전력난과 탄소배출에 관한 전세계적 공감대를 통한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한 생성형 AI 기술은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줘 산업계 전반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2022년 기점으로 AI 활용 본격화
기술 개발 비해 인프라 구축 미흡
“발전 용량 확보까지 수년 이상 필요”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투자한 1달러 당 평균 3.7배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있으며 상위 그룹은 평균 10.3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확실한 생산성 증가 결과가 나타나면서 전(全)산업계에서 생성형 AI 사용률은 2023년 55%에서 2024년 75%로 증가했고, 응답자의 43%는 생산성 관련 사례에서 높은 수익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도입 수준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디지털 리얼티가 전세계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응답 기업의 66%가 “자사의 AI 도입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46%의 기업이 이미 학습한 AI 모델을 배포해 수익 창출을 하고 있었다.

AI 기술은 개인 수준에서도 급격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또한 예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인 챗GPT

앱 사용자 수는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달 앱 사용자 수는 526만 명으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5120만 명 중 10%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도 51.6분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0분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용일수는 5.7일로 전년 동월 대비 2.4일 늘어났다.

문제시 되는 것은 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보편화 하면서 나타나는 전력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구 가트너는 오는 2027년 AI 최적화 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들이 2023년 대비 2.6배에 달하는 500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모하며 전세계 데이터센터의 40%가 전력 부족에 시달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체 410만 가구의 전력 소비량 4만 8789GWh의 10배 수준이다. 또 IEA 연구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는 2012년 이후 3.4개월 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 전세계 데이터 센터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은 전체 전력 소모량의 7%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의 연간 전력 소모량 수준이다.

가트너 측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현재 LLM 학습과 구현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송전, 배전 등 신규 인프라를 갖추고 발전 용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전력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현재 청정에너지 발전 기술이 보편화 되지 않았고 여전히 화력발전이 주요 전력 생산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 탓에 주요 빅테크 기업은 과거 탄소배출 경감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급증했다.

지난 7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내놓은 자사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계열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430만 톤(t)을 기록했다. 이는 탄소배출 경감을 목표로 했던 2019년 보다 48%, 2022년 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구글은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을 제품에 상용화 하면서 AI 컴퓨팅의 강도가 높아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증가하며 탄소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해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도체 및 에너지 기업들은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해결책으로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효율 AI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개발과 소형 원자력발전소(SMR)의 보급 등이 꼽히기 때문이다.

반도체·빅테크기업, 전력난 극복 나서
SK하이닉스 저전력 SSD 신제품 선포
구글 SMR 스타트업 전력 구매 계약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은 NAND 솔루션 최대 용량인 122테라바이트(TB)가 구현된 QLC 기반 기업용 SSD 신제품 ‘D5-P5336’을 시장에 내놨다. 세계 최초로 5년간 무제한 임의 쓰기가 가능한 내구성을 갖춰 데이터 집약적인 인공지능(AI) 작업에 최적화됐고 이를 이용해 NAS를 구축하면 전력 소비를 최대 84%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레그 맷슨 솔리다임 선임부사장은 “데이터센터 설계자들은 에너지와 공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품은 고객들의 이 같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전력 반도체 강자인 온세미는 트레오 플랫폼(Treo Platform)을 공개했다. 첨단 65나노(nm) 노드에 바이폴라-CMOS-DMOS(BCD) 공정 기술로 구축된 아날로그혼합 신호플랫폼으로 고성능, 저전력 센싱, 고효율 전력 관리, 특수 통신 장치 등 온세미의 광범위한 전력과 센싱 솔루션의 기반을 제공한다. 지난 8월에는 최신 세대 실리콘(Si)과 실리콘 카바이드(SiC)

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력 통합 모듈(PiM)을 F5BP 패키지로 출시했다. 높은 전력 밀도와 효율을 제공, 태양광 인버터의 총 시스템 전력을 300kW에서 최대 350kW까지 증가시킨다.

SMR 또한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 등과 속속 계약을 체결 중이다. SMR은 전기출력이 300MW 이하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공간은 작고 건설 기간은 짧은 미니 원전이다. 물 대신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구글은 지난달 구글은 미국 소형원자력 모듈(SMR) 스타트업 카이로스파워와 처음으로 전력 구매를 계약하고 2035년까지 총 5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받기로 했다. 500MW는 수십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한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보리스 샤랑거 디지털 인더스트리 AI 전략가는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산 단계에서 ‘되돌리기’ 버튼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AI를 산업용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3년후 전세계 IDC’서 계속

“단독 사용 소형 원자로 등 지속가능 운영 해법 필요”

이어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가운데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적했다. 따라서 초거대 언어 모델(LLM) 운영 및 개발 비용의 상승은 물론 전력 부족 심화가 전체 전력 가격 상승까지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풍력·태양광 발전소가 데이터센터 운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몰 이후 바람이 불지 않는 시기에 전력 생산이 어려워 항상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 탓에 화력 발전소 활용이 계속 되는 만큼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가트너 측은 해결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향상된 배터리 저장장치와 데이터센터가 단독 사용 가능한 소형 원자로 등 청정 에너지 신기술의 도입이 전력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봤다.

가트너는 “기업이 향후 몇 년간 데이터센터 요구사항과 전력 공급원을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생성형 AI 앱을 개발할 때는 최소한의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엣지컴퓨팅, SLM(소규모 언어모델)과 같은 대체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서현기자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데이터센터 전경.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AI 데이터센터(IDC)의 전력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반도체 개발과 소형 원자력발전소(SMR) 등을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솔리다임

“삶의 모든 순간을”… 여성·어린이·고령자 맞춤형 보험 확대

보험상품, 생애주기 역할 커진다
카카오페이손보, 어린이 성장 단계별 현대해상, 임신·출산기·노화기까지 신한라이프, 치매예방·장기요양 보장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상품도 다양해졌다. 영유아보험은 물론 치매간병보험 및 종신보험 등 생애주기별 상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생애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가는 삶의 연속 주기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5월 영유아보험을, 8월에는 초중학생보험을 선보였다. 영유아보험은 응급실 진료비 및 수족구·독감·폐렴·중이염과 같이 0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생애주기별 보험 이미지.

~5세 영유아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만 모아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초중학생 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한다.

두 상품 모두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간 유지

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 점을 보완한다는 평가를 얻는다.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영유아보험은 영유아기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1~3년 원하는 기간만큼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며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ABL생명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였다. 현대해상의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여성의 각 생애주기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장한다. 임신·출산기에는 ▲유방 ▲생식기 등을 보장한다. 폐경기에는 ▲정신질환, 노화기에는 ▲근육 ▲관절 ▲뇌 질환 등을 보장한다.

ABL생명의 ‘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은 부위별 암진단 보장, 여성 다빈도 질환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상품이다. 특약을 통해 암의 종류를 9개 영역으로 분류해 암 진단비를 그룹별 각 1회씩 최대 9회 보장한다. 임신부터 출산을 위해 인공수정·체외수정 치료비와 산후관리지원금을 보장한다.

ABL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A

BL생명이 창립70주년을 맞아 개발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고령자를 위한 치매간병 및 요양, 종신보험으로 사망 보장과 생애주기별 자금 활용 가능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0월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특약 가입 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도 같은 달 사망 보장 기능을 넘어 노후자금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밸런스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특정 시점별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로 고령시기 필요한 사망 보장에 최적화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은 물론 고객의 상황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생애주기별 자금 활용 밸런스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연금, KB증권으로 똑딱! 오세요

현금으로 바꿀 필요 없이, 갖고 있는 연금상품 그대로 옮겨주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작되니까요

퇴직연금도, 커져라 똑딱! 깨비증권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비대면 가입 시 IRP 제도 수수료 평생 무료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모바일에서 연금계좌 24시간 개설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082호(2024.10.11~2025.10.10)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수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는 연 0.20%~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ETF 거래 시 HTS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8%+2,000원, 모바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IRP 계좌개설 24시간 가능(단, 23:40~00:10 제외)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 이관·수권회사 공통 판매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KB 증권

“녹색산업 수출 20조 시대 개막”

尹정부 임기 반환점

환경부,尹정부 주요성과·계획 발표
녹색산업 협의체와 글로벌 시장 선점

환경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현장과 기술 혁신에 기반한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20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경 정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출·수출 20조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합리적 개선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 산업 지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에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하고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혁신 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손옥주 실장은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며 “17개국에 민관 수출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지난해 수출·수출실적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물이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의 양극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당연히 OF COURSE

마음껏 비교하고 추천받는 금융상품은 물론
개인 맞춤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도 당연히
NH올원뱅크로 즐기는 혜택 가득 금융생활

 NH올원뱅크

무엇이든 당연히 OF COURSE

마음대로 가능한 코스

내 맘대로 상품 비교하고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몰

나만을 위한 코스

몰랐던 나의 금융 패턴 분석부터
금융 여정을 편리하게 지원

언제나 특별한 코스

매일 참여 가능한 이벤트와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



※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농·축협 제외) 또는 고객 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880(2024.7.10-2025.7.9)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NH농협은행

與野 정국 주도권 어디로?...李, 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국민의힘, 野 균열 때 ‘방탄’ 프레임
李 형량 관심... 재판 생중계 등 주장

민주당, 어떤 결과에도 李 중심 묻쳐
피선거권 제한되면 비명계 나설 듯
무죄 판결 땀 ‘尹 정치탄압 희생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일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뒤 회의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 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역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

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관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與 표결 불참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
與 “李 방탄용 특검 추진 지적 나와”
본회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처리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진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

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

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당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理事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만,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추천’ 당론 결정

표결 절차 없이 의원 전체동의로 결정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

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불붙은 요양사업… KB라이프 이어 신한라이프 본격 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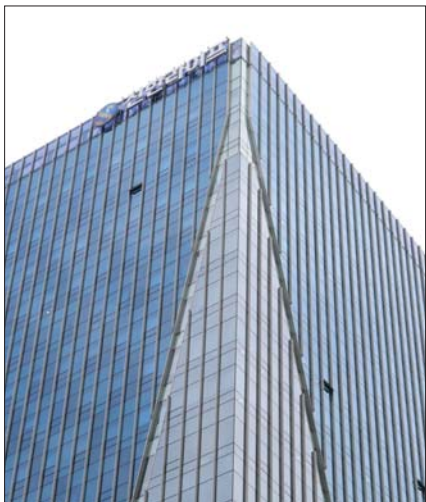
신한라이프케어 첫 요양시설 개소
‘분당데이케어센터’ 입주자 모집
2028년까지 5개 시설 추가 설립

교보생명 ‘다솜케어’ 간호사 채용
삼성생명, TF팀 신설·진출 고심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에 본격 참전한다. KB라이프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도 첫 요양시설을 개소하면서 요양사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4일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다.

신한라이프케어가 개소한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운동, 재활, 식사서비스 등을 체계



신한라이프 사옥.

/신한라이프

적으로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는다”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명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를 준비했다.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채용을 진행해 왔다.

지난 8월엔 삼성웰스토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노블카운티 등 시니어 식당 운영 관련 전문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분당데이케어센터 입주자를 위한 식음시설을 담당한다.

같은 달 시니어 공간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안전관리부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체계적인 헬스케어 시스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총 54명의 입주자를 목표로 채용된 19명의 직원이 함께 머무

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분당데이케어센터에 이어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1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엔 경기 하남시에 요양원을, 오는 2027년에는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설립을 앞두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비급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라며 “실버타운은 공동체의 삶이나 생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첫 요양시설 개소로 요양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생보업계의 요양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KB라이프생명은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면서 생보업계 요양사업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 2017년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를 열었다. 지난해 말에는 첫 실버타운인 평창카운티를, 내년 4월엔 은평빌리지 개소를 앞두고 요양사업을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는다.

대형 생보사가운데 교보생명은 지난 달 자회사 ‘교보다솜케어’를 설립하고 간호사 채용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올해 초 요양사업 검토를 위한 ‘시니어리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장 진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신한라이프 입장에서 사업 진출 초기에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설립하는 것 보단 데이케어센터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이 또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요양사업은 보험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양종희 “기업가치 제고계획 완성은 실행력”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 연례 주주간담회
“주주환원 충실 이행, 신뢰 쌓을 것”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완성은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3일 KB금융의 국내외 주요 주주를 초청한 연례 주주간담회를 통해 “KB금융은 새로운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주주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주간담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온 KB금융의 대표적인 IR 행사다. 주주들과 이사회,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주주간담회에는 30여명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석했다. 권선주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양 회장, 주요 계열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2024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사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집행임원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하여 밀도 높은 논의를 나누었다.

KB금융은 지난 10년간 주주간담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부터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방안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권 의장은 “주주 중심의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직접 소통하는 전통은 오늘날 KB금융이 밸류업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소통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화재,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조8665억

車 보험 손익 142억… 66% 감소
일반보험 누적수익 10.4% 증가

삼성화재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86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3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7438억원,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5541억원을 기록했다.

장기보험은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의 증가와 안정적 예상차 관리로 누적 보험손익 1조333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9% 성장했다.

3분기 말 CSM 총량은 전년 말 대비 8785억원 증가한 14조1813억을 기록했다.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채널 대응·전략을 통해 안정적 신계약 CSM을 창출했다.

자동차보험은 누적된 보험요율 인하나 매출경쟁 심화 영향으로 3분기 보험손익 1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보상 효율 관리를 통해 누적 합산비율 96.1%를 시현해 누적 보험손익 1635억으로 흑자 구조를 견지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누적 보험수익이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501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보유이원 제고 노력과 대체투자 등 평가의 확대에 따라 투자이익률 3.46%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p) 개선됐다. 누적 투자이익은 2조986억원으로 23.9%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집값 0.06% 올라… 34주째 상승

성수 ‘트리마제’ 6개월 새 5.5억 ↑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4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4주째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면서 34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광진구(0.08%→0.09%)가 광장·자양동, 중구(0.08%→0.10%)는 신당·홍인동 역세권 단지, 종로구(0.06%→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용산구(0.11%→0.10%)는 이촌·한남동, 성동구(0.14%→0.09%)는 성수·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4%→0.11%)는 반포·잠원동, 양천구(0.06%→0.06%)가 목·신월동, 강남구(0.18%→0.19%)는 압구정·청담동, 영등포구(0.07%→0.06%)는 문래동3가·당산동4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트리마제’는 이달 전용면적 136㎡가 6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매매가격(59억원) 대비 5억5000만원 상승했다.

11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3으로 전주(100.4)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지수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지만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거래가 정체됐다”며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김기홍 JB금융 회장, 연임 성공… 임추위 만장 일치

내년 3월 이사회 거쳐 재선임
현 성장세 유지 최적임자 평가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지난 13일 오후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김기홍 현 JB금융그룹 회장(사진)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진 전원으로 구성된 JB금융지주 임추위는 이번 회장 후보 선정에 앞서 그룹 내부 임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체 후보군을 확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군 압축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에는 최종 후보



군으로 김기홍 현 회장을 포함해 내·외부 후보자 총 4인의 후보를 선정하고, 지난 13일 PT발표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PT발표와 심층면접에서는 JB금융그룹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 전문성, 리더십, 사회적 책임 등 CEO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임추위 위원들은 업종 최상위 수익성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오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JB금융지주 유관우 이사회 의장은 “김기홍 회장은 현재의 사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핀테크·플랫폼 회사와의 협업 등 JB금융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을 위한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JB금융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룹의 현 성장세를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틈새시장 공략을 고도화하는 등 JB금융그룹의 향후 3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라고 모든 임추위 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오너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승진 책임경영체제·미래 신사업 탄력

HD현대 사장단 인사

정 부회장, 1년만에 쾌속 승진
친환경·디지털 혁신 주력 전망
HD현대일렉트릭 등 인사 단행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1월 부회장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총수일가 3세 경영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미래사업 개척과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선 부회장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다.

HD현대는 2024년 사장단 인사를 통해 정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는 그룹 내 처음으로 수석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 부회장을 승진시켰다. 회장에 오르기 전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정기선 부회장은 그룹의 주요 핵심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신,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지주사인 HD현대는 현재 전문경영인인 권오갑 대표이사 회장과 정 부회장이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 경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부회장이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건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입사하면서부터다. 앞서 2009년 대리리 입사했던 정 부회장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컨설팅 업체에서 2년여간 근무하고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입사했다. 2015년 기획실 부실장을 거쳐 2017년 부사장으로 승진, 2021년엔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통해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맡아 흑자전환을 이끌었고,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으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로 영입된 인사다.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에는 송명준 에이치디현대 재무지원실 부사장과 정임주 안전생산본부장이 공동으로 내정됐다.

HD현대삼호 대표이사에는 김재을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부사장이,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에는 김영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정 부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SDI가 13일 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삼성SDI 동반성장 DAY’에서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과 베스트 파트너사에 선정된 파트너사 대표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SDI

삼성SDI, ‘동반성장 데이’ 개최

최윤호 사장 “2030년 글로벌 톱 티어 성장”

동반성장 성과 공유… 10개사 시상

삼성SDI가 파트너사와 한자리에 모여 동반성장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다.

삼성SDI는 지난 13일 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삼성SDI 동반성장 DAY’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윤호 삼성SDI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파트너사 우수 혁신 사례 소개, 2025년 동반성장추진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품질 및 기술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10개 사에 대한 베스트 파트너사 시

상이 이어졌다. 행사장 한편에는 파트너사 우수 제품과 삼성SDI 주요 제품 라인업 등을 함께 전시해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최 사장은 “삼성SDI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파트너사의 혁신활동과 협력 덕분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을 완성하고 GM과 현대차 외 다수 OEM의 수주를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2030년 글로벌 톱 티어 회사’로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10월 자동차 ‘생산·판매·수출’ 트리플 증가

생산 36.8만대… 전년대비 7% ↑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신기록

지난달 자동차의 생산을 비롯해 내수·수출까지 3가지 부문 실적이 1년4개월 만에 동시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1~10월 누적기준으로는 수출만 소폭 증가하고 생산·내수는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자동차생산량(+7.8%)과 국내 판매량(+3.1%), 수출액(+5.5%)이 모두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내수·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생산은 +7%대로 가장 크게 늘어나 36만8000대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대

비 조업일수 증가(평일 기준 +1일)와 완성차 업계의 신차출시(기아 EV3·K8, KG모빌리티 액티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가 생산증가 요인으로 풀이된다.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수 증가는 그랑 콜레오스(10월 판매량 5385대) 신차 효과에 더해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4만9000대(전년동월비 +50.3%)로 역대 월 판매 최고실적을 기록한 효과가 컸다.

수출은 5%대의 증가 폭을 보이며 62억 달러(물량 24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이다. 특히, 지난달 하이브리드차 수

출은 11억 달러(+80.3%)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1~10월 누적 수출액 역시 591억 달러(+2.0%)로 사상 최고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생산과 내수는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각각 -2.7%, -7.0%를 기록했다. 내수의 경우, 국산(-8.2%)이 수입(-0.5%)보다 더 크게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11월 주요 자동차 업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LG엔솔, 美 테라젠에 8GWh 규모 ESS 공급

2026년부터 4년간 공급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Vertech)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Terra-Gen)과 최대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출범한 이후 거둔 최대 규모의 성과로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지난 2022년 2월 미국 ESS 시스템통합(SI) 기업 NEC 에너지솔루션을 인수하며 출범한 ESS SI 전문 미국 법인이다. ESS 배터리 공급뿐 아니라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

며 북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번 계약 물량의 공급 기간은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다. 8GWh는 약 80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공급되는 제품은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통셀 ‘JF2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러 제품인 ‘New Modularized Solutions’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ESS 성능을 분석하고 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에어로스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두산에너지빌-한전KPS, 가스터빈 사업 힘 모은다

기술 협력, 협의체 구성 등 MOU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전KPS와 협력해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와 ‘가스터빈 기술 협력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가스터빈 기술 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가스터빈 계획 정비 및 부품 공정 분야 협업 ▲

한국형 가스터빈 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정기적 기술 교류회 구축 및 개선사례 공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산화 과정에서 구축한 가스터빈 관련 기술이 한전KPS의 정비 기술, 전문 인력 등과 만나 해외 제작사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으로 국내 에너지 안보와 전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가스터빈 기술 협력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 한전KPS 김도은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현대차그룹 신형 전기차, 글로벌 관심집중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9·EV9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의 신형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14일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에 아이오닉9와 EV9 GT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기술력을 집약한 플래그십 전동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 아이오닉9는 이달 말 미국에서 진행하는 아이오닉9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통해 공개 예정인 모델이다. 티저 이미지를 통해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된 캐릭터 라인, 시그니처인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팅, 속도감과 역동성을 담은 멀티 스포크 휠 등을 공개한 이후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기아 EV9 GT는 플래그십 대형 전동화 SUV EV9의 고성능 모델이다. EV9 GT는 ▲99.8kWh 대용량 배터리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능과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내·외장 디자인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게임 넘어 교육·치료까지… K-게임, 사회적 가치 넓힌다

부산 벡스코서 ‘지스타’ 개막

넥슨, 7년 만에 메인 스폰서 북극 넷마블, 인기 IP 기반 신작 선보여 크래프톤, 액션 RPG 라인업 공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1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지스타 개막식에는 강신철 조직위원장 겸 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지스타 2024메인스폰서인 김정욱 넥스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용 하이브IM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개막식은 지스타 2024개최를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레머니를 한 후 관계자들이 함께 부스를 둘러보는 투어로 마무리했다.



강신철 조직위원장 겸 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김정욱 넥스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용 하이브IM대표 등이 특별 제작 버튼을 눌러 전시회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최빛나 기자

윤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스타는 게이머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게임 축제로 자리잡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 강국으로 국민의 63%가 즐

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가 됐다. 게임 분야는 여가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치료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게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한 게임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게이머 권익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게임 더하기 등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스타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s)’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B2B와 B2C 총 335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장에선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하이브IM 등 게임사들의 신작을 시연하고 컨퍼런스, 지스타 인디쇼케이스, 게임 코스프레 어워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넥슨이 7년만에 메인스폰서로서 300부스를 넘는 규모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지스타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준비돼 있다. 역대 코스프레 어워드 우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왕중왕전이 열린다. 게임문화 심포지엄, 한국 게임산업 정책포럼, 게임정책 공동세미나 2024 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접할 수 있는 포럼들도 마련돼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몰입감 넘치는 게임 한 판 어떠세요?”

지스타서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HDR10+ GAMING, 세밀한 명암 표현 인기 게임부터 SNS 이벤트까지 마련

삼성전자가 오는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게임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오디세이 OLED G5(G50D)

▲오디세이 OLED G6(G60SD·G61SD) ▲오디세이 OLED G8(G85SD·G80SD) 등 올해 출시한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 협력해 ‘인벤 플레이라운지’에 ‘올레디올레드(AllReady. OLED)’ 체험존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오디세이 모니터 신제품으로 인기 게임인 ‘레고 포트나이

트’, ‘오버워치 2’ 등을 할 수 있다. 체험존 외에도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하이브IM 등 파트너사 부스에서 오디세이 모니터를 체험할 수 있다.

게임 체험 외에도 방문객들은 오디세이 모니터의 높은 주사율을 체험할 수 있는 ‘동체 시력 테스트’와 모니터 체험을 인증하는 ‘SNS 인증 이벤트’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 화질 기술 ‘HDR10+ GAMING’이 적용된 하이브IM의 ‘아키텍

트: 랜드 오브 액자일’ 게임은 명암을 세밀하게 표현해 극대화된 몰입감을 선사한다.

아키텍트 메인부스에서는 추첨을 통해 ‘오디세이 Neo G9’, ‘무빙스타 일 M7’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체험존을 통해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모델이 지스타 2024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All Ready. OLED’에서 오디세이 모니터의 높은 주사율을 경험할 수 있는 ‘동체 시력 테스트’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SKT 수험생 응원 이벤트 경품·T멤버십 혜택

SK텔레콤이 대입 수험생을 위해 최신 IT 경품, 공연·전시 할인, T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0 수능 페스티벌’ 이벤트를 14일부터 진행한다. ‘0(영)’은 SKT의 만 13~34세 청년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SKT는 수능을 치른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SKT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한 2005~2006년생 수험생 대상으로 ‘0스타터 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T월드 0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북 프로 360, 100만 원 상당의 스탠바이미고, 80만 원 상당의 에어팟 맥스 등 6가지 경품을 150명에게 제공한다. 미당첨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는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PBV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확산

기아, DHL코리아와 프로젝트 추진

기아가 물류업체 DHL 코리아와 목적기반차량(PBV)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친환경 물류 생태계 확산에 힘을 보탠다.

기아는 DHL코리아와 친환경 물류 운송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는 물류 분야 친환경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다. 기아는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PBV 관련 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DHL코리아는 2030년까지 물류 차량 100% 전동화 목표를 세웠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2026년부터 첫 중형 PBV ‘PV5’를 DHL코리아에 공급한다. 또 DHL코리아의 물류 현장 및 차량 운영 관련 특성을 파악해 DHL코리아의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PBV 모



DHL 코리아 한지현 대표(왼쪽)와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이 13일 기아 브랜드 체험관 Kia360(서울 압구정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델도 제작할 계획이다.

기아와 DHL코리아는 이번 협약으로 물류 시장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대해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아는 DHL코리아와의 협약을 계기로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 대상 협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협업 모델도 PV5에서 대형급 PV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온세미 SSPMG, 전력 전자설계 효율성 향상

직관적 웹 기반 모델 생성기로 간소화

온세미가 직관적인 웹 기반 플랫폼으로 엔지니어의 다양한 모델 생성을 돕는다.

온세미가 14일 뷔르트 일렉트로닉(Wurth Elektronik)의 패시브 부품 데이터 베이스를 당사의 독보적인 셀프 서비스 PLECS·모델 생성기(SeIf-Service PLECS·Model Generator, SSPMG)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온세미는 이번 통합을 통해 직관적인 웹 기반 플랫폼으로 복잡한 전력 전자 애플리케이션의 맞춤형 고정밀, 고충실도 PLECS 모델 생성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성능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 SSPMG에 뷔르트 일렉트로닉의 수동 시스템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생성된 스위칭 손실 모델은 이전보다 더욱 높

은 정밀도를 달성한다.

SSPMG 기능은 온세미의 물리적인 확장 가능한 SPICE(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모델은 반도체 물리학과 부품 제작의 실제 공정 변화를 바탕으로 하며, 회로에서 동작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SSPMG 손실 모델은 다운로드한 후 고객의 독점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하거나, 업계를 선도하는 온세미의 엘리트 파워 시뮬레이터(Elite Power Simulator, EPS)에 업로드할 수 있다.

EPS는 온세미의 엘리트SiC(EliteSiC) 제품군, 파워트렌치(PowerTrench) T10 MOSFET, 필드 스톱 7(FieldStop 7, FS7), IGBT, IPM에서 고객에게 회로 토폴로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블록체인… 법·정책 제도화 속도

업비트 D 컨퍼런스

전 세계적으로 실물금융 직접 적용 기술·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트럼프 정부 코인시장 규제완화 금융기관 참여 유도… 자본유입 기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 미래 방향성 등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가상자산이 강력히 떠오른 만큼 블록체인의 실물 경제로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로 4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산업 가치를 설명했다.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성장, 대중화를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에서 ‘D:Sight’ 현실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 미래를 향한 거대한 흐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송 회장은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권화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블록

체인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있게 인정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돼가고, 법과 정책적으로도 제도화되고 있으며, 기술뿐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기존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

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개최되는 UDC 2024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Blockchain: Powering Real World Change)’을 주제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트렌드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의 주제로 나눴다.

UDC 2024의 첫 번째 키노트 무대는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인 마이클 케이시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대담이 진행됐다.

마이클 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코인 시장 내)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에서의 규제·제한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해로웠다. 이러한 문제가 사라진다면 은행 등 주류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면서 더 큰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더 큰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한했던 법 준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금융 기관들이 참여를 많이 주지했던 만큼 트럼프 정부의 코인

시장 규제완화가 금융기관의 진입로를 열어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열린 이후 관심이 크게 늘어난 은행권 동향, 세계 각국 정책 관계자들이 들려주는 규제 방향, 블록체인 보안전문가들이 전하는 웹3 시대 맞춤형 보안 등 최근 주요 화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L VMH’의 사샤 로월드 경영 고문이 명품 브랜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력 관리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UDC 2024에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비즈니스 세션에는 카이코(Kaiko)의 키스 여 아태지역 총괄 책임, 리플(Ripple)의 로스 애드워즈 디지털 금융기관 분야 상무, 서클(Circle)의 얀키 찬 부사장, 파소스(Paxos)의 윌터 헤서트 최고 전략 책임자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JP모건 “주식·채권 포트폴리오 60 대 40 구성”

내년 장기자본시장가정 전망치

주식 수익률 6.7%~8.1% 예상

채권, 10년 美 국채 수익률 年 3.9%

한화운용, DB형 퇴직연금 등 주력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60대 40으로 구성, 향후 10~15년 동안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6.4%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이피모건자산운용은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언론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전망치를 발표했다. 캐리 크레이그(Kerry Craig) 제이피모건자산운용 글로벌마켓전략가는 “수익 전망치는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20년간의 평균 수익률과 유사하다”라며 “적극적 운용과 대체 자산 편입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피모건자산운용의 LTCMA는

전 세계 100명이 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서치 애널리스트, 전략가들의 양적·질적 정보를 결합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 전망은 19개 기준 통화로 200개 이상의 자산군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제이피모건자산운용은 주식의 경우 현재의 높은 평가를 감안해 6.7~8.1%, 채권은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평균 3.9%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하락과 자금 회수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모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으며, 실물 자산 중에서는 미국의 신흥 지역 등 비핵심(non-Core)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내년 경기침체 위험이 낮게 유지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크레딧 채권에 주목하며, 기업이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지면 스프레드(위험채권과 무위험채권의 금리격차)가 완만해지면서 이자 수익이 매력

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의 경우 중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현금 창출력을 고려해 미국 주식을 선호하며, 재평가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일본 주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글로벌 GDP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 글로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인공지능(AI) 관련 장기적인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한화자산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공모펀드 시장이 일반 리테일에서 연금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시장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타겟데이트펀드(TDF)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



지난 13일 홍콩에서 금융감독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R)가 개최됐다. 이날 (왼쪽부터)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투자 회장, 유형철 주흥공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투자 회장, 리춘보 CITIC CLSA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자본시장 선진화로 증시활력 도모”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정안 확정할 것 대체거래소 도입 등 투명한 환경 조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자 소통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상장제도 정비를 통해 증시의 활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등과 홍콩에서 공동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노력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스튜어트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 주주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기업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정보 보고체계 가동 등을 통해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거래소(ATS) 도

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약 2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목적과 경과 등을 설명하고, 금융중심지(서울시·부산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피터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결실”이라며 “향후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한국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외국인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춘보 CITIC CLSA 대표는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한다”며 “한국과 홍콩 간 상호 협력 강화는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경과에 대해 해외투자자와 소통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삼성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1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피치는 삼성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증권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은 2022년 10월 BBB 등급을 받은 지 2년 만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삼성증권의 견고한 재무 건전성과 양호한 수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4년 5개월만에 ‘4만전자’로 풀썩

4만 9900원에 장 종료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면서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 밀려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38% 하락한 4만99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지난 7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자 5만원선을 방어하지 못하고 4만원대로 내려온 모습이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15일 증가였던 4만9900원 이후 4년5개월 만

에 최저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는 14조 2000억원 정도인데, 동기간 삼성전자 순매도가 15조 4000억원”이라며 “외국인 순매도의 약 110%가 삼성전자 한 종목이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반면, 동일 기간 같은 반도체 업종은 SK하이닉스는 1조 2000억원 순매수하면서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역시 4750억원을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기술·경영혁신 기업 ‘한자리에’… 발전 유공자 230점 포상

2024 중소기업 ‘혁신대전’

우원기술 대표 등 2명 ‘은탑훈장’
AI·R&D혁신 등 기업전시 펼쳐

오영주 장관 “디지털 경제시대
中企, 선두주자로 성장하게 지원”

대한민국 혁신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영성과를 뽐내는 자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는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식을 열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혁신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유공자를 포상했다.

이날 포상에서 우원기술 김태완 대표, 에스케이오토텍 정지원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2000년부터 시작해 25회째를 맞은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올해엔 ‘혁신형 기업, AI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탄소중립 ▲글로벌 ▲R&D 혁신 등 4대 중점분야의 기술·경영 혁신과 관련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기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이 14일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왼쪽 네번째부터)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광천 메인비즈협회장,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김종호 기보 이사장 등이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술·경영혁신 기업이 행사를 함께 한 것은 올해가 두번째다.

개회식에선 기술·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2점, 동탑산업훈장 1점, 근정포장 1점, 산업포장 3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73점 등 총 230점의 포상이 돌아갔다.

은탑훈장을 받은 김태완 대표는 세계

최초로 ‘틸팅 Z스태킹(Tilting Zstacking)’ 방식의 초고속 전극 적층 기술을 개발해 적층 시간을 단축, 국내 이차전지 정밀산업분야 성장에 기여했다.

정지원 대표는 자동차용 도어래치 액추에이터 하우징, 윈도우 레굴레이터 드럼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3년간 총 매출액 1605억원 등의 성과를 올리며 도어무빙시스템 산업 발전에 힘썼다.

이외에도 동탑산업훈장은 이노바이오써지 왕제원 대표가, 근정포장은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가, 산업포장은 금성풍력 정형권 대표와 프라임방재 김희택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대한민국 혁신의 선두주자로 활약해 온 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면서 “다양한 기술이 어우러져 중소기업들이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테마별로 혁신성이 우수한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자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올해 혁신대전은 AI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혁신 노하우 공유에 중점을 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AI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기업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행사는 글로벌친환경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 기술사관 취업매칭박람회,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경영 혁신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확대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선두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물류산업 2題

한진, 드론이 창고 내 재고 파악 작업자는 스마트 글라스로 상차

‘한진 스피크’ 열고 최신 스마트물류 공개
음성 지원 ‘스마트 글라스’ 양손 자유로워

한진이 산업 현장에 적용할 최신 스마트물류 기술을 공개했다. 한진은 지난 13일 남서울종합물류센터에서 ‘한진 스피크(Hanjin Sneak Peek)’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살짝 엿보다’는 뜻의 스피크(Sneak Peek)은 정식 도입 전 제한된 청중에게 기술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로, 이번 시연회는 드론과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한진의 미래 물류 기술이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선 드론이 창고 내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작업자는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해 상품을 피킹, 패키징, 배송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또한 스마트 기기 도입 전후의 프로세스 변화를 비교하는 영상과 LED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과정을 중계하며 스마트물류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술의 핵심은 작업 효율성과 정확성의 대폭 향상이다.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는 기존 수작업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고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재고 조사 주기를 단축시켜 보다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공급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작업자가 창고 내에서 제품을 찾고, 포장하며, 고객에게 배송하는 전 과정에 적용될 스마트 글라스는 물류 작업자가 제품의 운반 과정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실시간으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월한 작업을 돕는다.

특히 음성 지원 기능을 탑재해 작업자는 별도의 수작업 없이 피킹, 패키징, 상차, 배송 등 물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음성으로 시스템에 로그인



한진은 지난 13일 남서울종합물류센터에서 드론과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연회 ‘한진 스피크’를 진행했다. 조현민 사장이 창고 내 상품 재고 파악에 활용하는 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한진

하고, 배송 작업 시 주소를 말하면 배송 대상 목록과 수량이 자동으로 글라스에 표시된다.

배송 현황도 스캔만으로 고객에게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며, ‘촬영’ 음성 명령으로 사진을 촬영해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어 작업의 연속성과 정확도를 유지하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운송장을 보안 운송장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운송장에서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나, 스마트 글라스를 통한 보안 운송장은 바코드 형태로 되어 모든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 물류 기술은 한진이 꿈꾸는 미래 물류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프로세스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오배송과 추가 배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운송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美에 대규모 콜드체인 물류센터 CJ대한통운, 북미시장 ‘정조준’

조지아주에 약 7500평 규모 조성, 운영시작
인근 북동부 내륙항 완공엔 수송범위 확대

CJ대한통운이 미국에 대규모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콜드체인 시장에서 핵심 물류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콜드체인 기능을 갖춘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2만4904㎡(약 7500평) 규모로 조성한 센터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다양하게 온도관리를 할 수 있는 복합물류센터다. 약 90% 공간은 냉장, 냉동 제품을 대상으로 한 콜드체인 물류를, 나머지는 상온 물류를 수행한다.

이 물류센터는 단시간에 온도를 낮추는 급속 냉동 시스템(Blast Freezing System)을 도입해 빠르고 효율적인 냉동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관상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인증 검사실이 센터내 갖춰져 있다.

물류센터 주변으로 주요 철도 노선인 노퍽서던 철도(Norfolk Southern Railway)와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물류수행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게인스빌 인근에 건설 중인 조지아 북동부 내륙항(Northeast Georgia Inland Port)이 완공되면 사바나(Savannah) 항구와 연결되어 수송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게인스빌 지역은 미국 내 냉동 가공류 최대 생산지로 냉동 물류 수요가 매우 높다. 특히 주



CJ대한통운 조지아주 게인스빌 콜드체인 물류센터 전경.

변 물류센터들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최신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CJ대한통운의 신규 물류센터가 지역의 급증하는 물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J대한통운은 냉동 가공식품, 가공류, 제과·제빵 고객사를 미리 확보해 물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근 수요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고객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J대한통운은 북미 물류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 3분기 운영을 목표로 캔자스주 뉴센추리에 2만7000㎡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 지역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민간합작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케빈 콜먼(Kevin Coleman)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콜드체인 물류에 특화된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인스빌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사들에게 최적의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영역인 콜드체인 물류 사업을 지속 확대해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법인세 감소로 나라살림 적자 확대 9월말 기준, 역대 3번째 규모 기록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2020년·2022년 이어 90조 진입
공공부문 지출 확대·세수감소 원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역대 3번째 수준까지 늘어났다. 10~12월 석 달치 집계를 남겨둔 9월 말 현재 적자 폭이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90조 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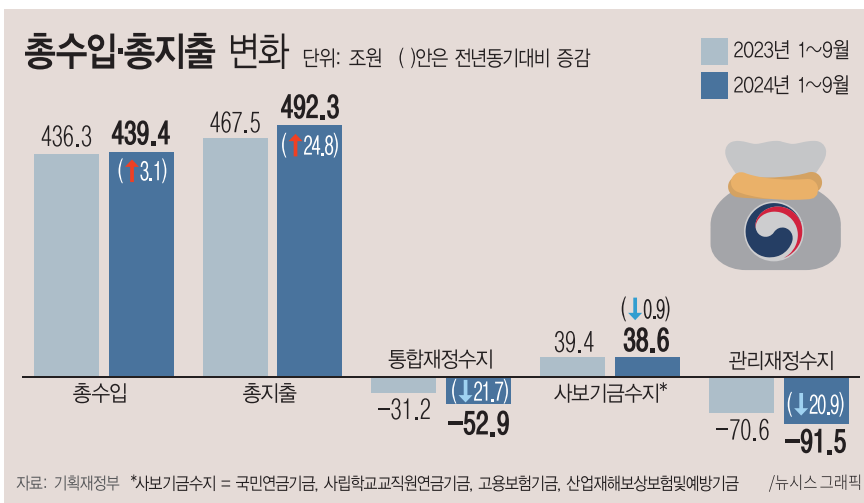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52조9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8조6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 원), 2022년(-91조8000억 원)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적자가 향후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며 “본예산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치이고 그것을 딱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정부 살림살이 악화의 결과로 작용했다. 1~9월 국세수입이 255조3000



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조3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 중 특히 법인세(-17조4000억 원)가 급감했다. 소득세(+4000억 원)와 부가가치세(+5조7000억 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으나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하진 못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24조8000억 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 원), 퇴직급여(1조5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 원)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이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으

로 나타났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였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8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8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전망했던 전체 국가채무가 있는데,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망치에 근접할 것”이라며 “대규모 상환이 11월에도 있고 순발행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IAT, 혁신 생태계·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전략적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책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해 공동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국장급 공무원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협업

을 본격화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자유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통해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KIAT는 경제자유구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특구 활성화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 간 협업을 논의해 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자유역과 특구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특구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전국 지역 전통주를 한곳에 모았어요”

농식품부-aT, ‘우리술 대축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5~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우리술 대축제는 매년 1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주 행사다. 소비자들에게 우리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전년도의 약 3배인 6200여 명에 달했다. 참여업체 수도 116개소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막걸리 빚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을 비롯해 한정판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특별경매쇼, 주류 트렌드 세미나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우리술 대축제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지역 전통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23일 경기 화성의 한 양조장을 찾아 산·학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나로마트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0개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전통주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입점 매장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우수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행사인 만큼, 오셔서 다양한 우리술을 즐기시고 참여업체 역시 본인들의 제품을 마음껏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응”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
국내 최초 석유·가스 공동 저장소
수소·암모니아 청정에너지 확장 계획

울산 남구에 건설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 KET는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 에너지터미널로 평가받는다. 준공식이 14일 오전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KET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전남 여수 석유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 준공에 이어 2번째로 준공된 국내 에너지 거점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조건 등을 기반으로 추진됐다”며 “현재 여수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 터미널 또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에너지터미널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석유 중심의 모델을 탈피해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복합 터미널로 추진됐다. 혁신적 모델로 거듭난 만큼, 향후 수소·암모니아·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울산 남구에 자리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뉴시스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 터미널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터미널은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그간 국제 석유거래업 신설, 종합보세구역 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 등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앞장서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대규모 국가 기반사업인 석유 비축기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터미널 설계·건설에 기여했다.

민간부문인 SK가스의 경우, 울산지역의 민간 LNG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해, 울산지역 첫 번째 LNG 터미널 구축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터미널의 상업성을 대폭 확대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석유·가스 저장시설(총 440만 배럴) 모두 대여 계약을 마친 상태다. 17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제품 트레이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270만 배럴 규모(20만톤)의 가스 저장시설은 울산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의 신규 발전·산업 연료 등으로 공급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 안전기술로 건설현장 안전성 강화

고용부, 12개 전문건설사와 협력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해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 개발을 통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이재형 · 신성록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5877.2만명… 공영 주차공간 확충

〈전년비 29.3% ↑〉

올해 10월까지 전국공항 이용객 15% ↑
엔화약세·황금연휴에 국제선 늘어

인천공항 여객수, 지난해 기록 넘어
예상 승객 7079만명… 역대최대 전망
영종역 공영주차장에 401면 공간 조성

올 10월까지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엔화의 약세로 일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전년 여객수를 이미 뛰어넘어 역대 최대 기록도 달성할지 주목된다.

13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김포와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은 1억2654만 3473명으로 전년같은기간 1억1006만 9108명 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항의 이같은 증가는 올해 엔화의 약세로 일본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고, 황금연휴를 이용해 동남아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국제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

가 크게 증가했다.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5877만2632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4544만5496명과 비교해 29.3%가 늘었다. 이기간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지난해 총 5613만1064명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대개조 본격화

월계2 택지개발지구 수정 결정안 가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계획 담겨
올해 연말 최종 결정 고시 방침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 시대’ 청사진에 맞춰 주거공간의 혁신 기반이 마련됐다.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되면서 서울 강북권 대개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희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강북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등 변화된 공간적 여건과 중랑천, 경춘선 숲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담겼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릉·삼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700세대의 대규모 주거복



월계2 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서울시

합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광운대 역세권 물류 부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계2지구 서측은 1호선 철도, 동측은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으로 단절돼 있다.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철도와 동부간선도로(중랑천)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를 신설, 확장함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에 이를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동서 간 도로의 폭을 넓히고 순환 도로체계를 새로 만들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 시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등 인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상업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복합용지를 구획,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동부간선도로와 인근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도 계획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받는 공공기여는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상업문화·생활 공유·수변 친화 길을 넣었다.

수변 친화적 주거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최고 높이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로 설정했다.

시는 내달 초 재열람 공고 이후 이르면 올 연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남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월계2지구가 상계·중계와 더불어 강북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운대역 중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여기에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국 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공항의 예상 승객은 707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058만명보다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일본 노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의 여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과 청주 등 지역 공항도 활기를 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같은기간 1292만624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면서, 항공기 운항편도 이기간 7만7931편으로 전년 같은기간 6만7421편보다 15.6% 증가했다.

같은기간 청주공항을 이용한 승객도 391만3458명으로 30.2% 늘어, 이달 6

일 기준 400만명을 넘어섰다.

청주공항의 이같은 증가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16개 국제선이 운항되면서 여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포공항의 이용객은 1923만 3099명으로 전년같은기간 1959만9263명보다 1.9% 감소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유주차 공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이 포화 상태됨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 공용주차장의 이용객 유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구 운봉동 일원에 위치한 영종역 공영주차장의 대규모 확장공사를 마치고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영종역 공영주차장 178면에서 223면을 추가해 총 401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으며 20억원(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내일 여학생 축구대회 운영

‘제4회 공차소서 축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6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축구장에서 ‘제4회 공차소서(축구)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공차소서’는 ‘공을 차자! 소녀들이! 서울에서!’를 줄인 말로,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차소서 축제에는 지난 8월부터 총 64팀이 리그전을 거쳐 최종 4강에

오른 중·고교 8팀(160여명)과 교사, 교육청,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공차소서’ ‘여신’ 등 여학생들만의 스포츠 축제를 운영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풋살 종목에 여자부를 신설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학생 1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여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촉

대학생 69명, 홍보서포터즈 31명 구성

서울시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에 참여할 100명의 시민위원과 14명의 전문위원을 확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위원은 42개 대학의 대학생 69명과 10~60대 다양한 계층의 홍보서포터

즈 31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으로는 독립운동가 윤익병 선생의 후손 윤태근씨와 조소안 선생의 후손 조인래씨,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소 소장, 손혜리 서울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위원 김영민씨 등이 선정됐다. /김현정 기자

광주FC, 운영자금 부족… ‘빚 54억’ 발생

2030년까지 청산 못하면 자동퇴출

프로축구 무대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고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FC가 운영자금이 부족해 54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까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1군 무대에서 자동 퇴출 될 수 있다는 우려

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FC 이사회가 지난해 24억원, 올해 3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체류 비용, 외국인 선수 영입, 선수단 급여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FC는 대출 자금을 갚지 않아 이자 포함 55억원이 빚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광주FC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40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FC가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1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K리그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1군 무대에서 자동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주민동의 우선 대원칙 따라”

전남 목포시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용궁배수지 태양광발전 시설 추진이 무산됐다.

시는 용해동 양을산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 임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올해 초 용궁배수지 4만 4272㎡ 중 9133㎡(20%)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용궁배수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주민들은 배수지의 환경오염 우려와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중단 이유로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주민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oh7505@

“전문경영인 선임, 그룹 안정화… 신약개발 역량 키울 것”

한미약품 3자연합

정관변경 결의안건 의지 공고히
이사회 정원 10→11명 확대 내용
獨 머크 사례 ‘가족경영’ 청사진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연합’ 측이 현재 한미약품그룹이 놓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안정화’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 측은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의 핵심은 전문경영인 선임으로, 지난 7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주장한 경영권 강화는 분란을 지속하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3자 연합 측의 설명이다.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한미약품

우선,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회에서 ‘정관변경’과 ‘신규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지속 밝혀 왔다. 정관변경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사 추가 선임을 통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가 1인 자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을 올린다.

3자 연합 측이 설계한 이사진 구성은 6대 5 비율로, 이후 3자 연합 측은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자 연합 측은, 대주주는 이사회에서 한미를 지원하고, 전문경영인이 선두에서 한미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 2023년 3월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선임해 지주회사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경영을 펼쳐 왔다. 그 결과, 박재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 환경이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약품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기업 가치인 신약개발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갈등과 무관하게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비만 및 대사, 표적·면역 항암제, 희귀질환 등 주요 치료 군별 조직이 완성됐고,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 역량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발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 역량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한미약품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989억원으로 한미약품은 올해 연구개발비는 총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3자 연합 측은 353년 전통의 독일 제약사 머크처럼 ‘가족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머크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의 일원과 머크 사업 분야에 통통한 외부 전문가를 혼합한 파트너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파트너위원회에서 머크의 최고경영진이 선임된다. 선임된 전문경영인은 철저하게 독자경영을 추진할 수 있고, 대주주들은 감독 기능을 한다.

3자 연합의 핵심 인물인 임주현 부회장은 “가족 주주들이 책임지고 회사를 지원하는 머크의 사례를 참고해 한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3자 연합 측과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 전반에서 이사회를 강화해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경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한미약품그룹은 제3자나 기타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주주분들의 선택을 받았고, 현재 이사회 신임을 받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종훈 대표는 3자 연합 측 이사진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형제 측을 지지하는 이사진 추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oul.co.kr

롯데, 그룹차원 첫 ‘디자인전략회의’ 열어

신동빈 회장·대표 등 40여명 참석
디자인 철학·원칙 공개, 로드맵 공유

롯데는 14일 롯데월드타워에서 ‘디자인전략회의 2024’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각 사업군 총괄대표 및 계열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돈태 디자인전략센터장이 그룹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롯데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그룹 차원에서 디자인 전략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롯데그룹의 디자인 철학은 ‘일상에서 일생으로의 공감(Empathy, From day to lifetime)’이다. 고객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한다는 그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과의 공감대를 일상 경험에서 시작해 일생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롯데는 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롯데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디자인 철학을 구축했다.



롯데는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공유하는 ‘디자인전략회의 2024’를 14일 개최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맨 왼쪽)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장(왼쪽 두번째)이 롯데 디자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된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지주

롯데는 그룹 디자인 철학이 담긴 일관된 메시지를 전 산업군에 걸쳐 고객과 파트너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신뢰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 철학에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그룹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롯데 디자인 로드맵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롯데는 이번 디자인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전 직원에게 롯데의 디자인 철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립한 디자인 철학은 2025년 상반기까지 전 계열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의장에는 ‘롯데 디자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디자인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계열사별 디자인 IP를 공유하고 활용해 IP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전략과, AI 시대에 발맞춰 AI 디자인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선보였다. 롯데의 고객 경험을 연결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계열사별 시너지를 강조한 부스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그룹-올림푸스제일차, 주주간 계약

SSG닷컴 재무적투자자 성공적 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쓱닷컴(SSG.COM)’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계열 에스에스지(SSG)닷컴이 재무적투자자(FI)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신세계가 ㈜에스에스지닷컴의 신규 투자자인 ‘올림푸스제일차’와 새로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올림푸스제일차는 KDB산업은행·신한은행·NH투자증권 등 은행권 6곳과 증권사 4곳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기존 FI가 보유했던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를 양수하게 된다.

이번 주주간 계약의 계약금액은 1조 1500억원이다. 주식 양수도에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에스에스지닷컴은 이번 투자자 유치 성공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해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정면 돌파할 성장 동력을 강화하게 됐다”며 “수익성을 개선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해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것은 물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자 유치는 에스에스지닷컴의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한 혁신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에스에스지닷컴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2억원의 영업손익을 개선하며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26억원을 기록해 3개 분기 연속 흑자(1~3분기 누적 101억)를 달성했다. 4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작업에 속도를 더해 연간 EBITDA 흑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투자자인 올림푸스제일차가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를 1조 1500억원에 양수함에 따라 에스에스지닷컴의 기업가치를 3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기업가치는 올림푸스제일차의 기업 실사와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예약판매, 28일부터 수령

이마트24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예약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이마트 24 매장에 직접 방문해 예약한 뒤, 이달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의 분말소화기로, 자동차 검용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마트 24의 차량용 소화기 예약 판매를 알리기 위해 이마트24 직원들이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이마트24

SPC GFS, 몬즈컴퍼니 흡수 합병

상품 다양화·물류망 확대 등 기대

SPC삼립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SPC GFS가 SPC삼립의 또다른 자회사인 몬즈컴퍼니를 흡수 합병한다.

SPC삼립은 유통 부문 계열사간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PC GFS가 몬즈컴퍼니를 흡수 합병하

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몬즈컴퍼니는 베이커리·카페 식자재 유통 온라인 플랫폼 ‘베이킹몬’을 운영하는 회사로, 2021년 SPC삼립에 인수되어 현재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SPC GFS는 양사의 플랫폼 사업 역량을 합쳐 ▲판매 상품 다양

화 ▲전국 물류망 확대 ▲온라인 유통 확장 ▲운영 효율성 등을 통해 B2B 식자재 유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급식·마트·외식 식자재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카페 소재까지 확장시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베이킹몬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한다.

SPC GFS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각 플랫폼의 유통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B2B 비즈니스 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삼성, ‘이건희 동행철학’으로 이어가는 나눔의 손길

디지털시티서 ‘나눔의 날’ 행사
23개 관계사, 임직원 11만명 참여
2주간 키오스크 기부 금액 3.5억

“삼성 임직원의 기부는 단순 지원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소희 양의 어머니)”

올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4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삼성이 기부와 대면봉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건희 동행철학’을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다.

삼성은 14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2024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워크’를 결산하고 봉사·기부 등 일상 속 나눔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워크 기간 동안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를 비롯해 각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을 위한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지역 사회 대면봉사,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캠페인 등에 참여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11만 여명에 이른다.

올해는 삼성전자 해외 법인도 처음 동참해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에 나섰다.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2주간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당초 아동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원을 기부한다는 목표였는데 1억원 넘게 초과 모금된 것이다.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기계에 대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부 대상은 희귀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아 등이다. 특히 올해는 나눔키오스크가 설치된 미국·중국·인도·태국·베트남 등 5개국의

9개 삼성전자 법인 임직원들도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

삼성 관계사 대표이사(CEO) 등 주요 경영진들도 봉사활동에 나섰다.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2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 캠퍼스에서 교육생들과 만나 ‘미래와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등 멘토링을 했다. 후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 13일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묘역 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임직원들은 지난달 말 현지 학교와 NGO 등 약 50개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진로 멘토링 ▲학교 일일교사 ▲무료 급식소 배식 지원 ▲지역 사회 환경 개선 등에 참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 글로벌벤처스 2기’ 데모데이 성료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파트너 매칭을 통해 사업확장(스케일 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오픈노베이션 ‘CJ 글로벌벤처스 2기’의 톱3 스타트업이 최종 선정됐다. /CJ



SK바이오사이언스, 과기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는 14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미래포럼’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中소기업계, 나눔 행사 열고 사회적책임 실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 페스타 300여社, 생활용품 등 15만점 후원

중소기업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나눔 행사를 열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후원물품을 모아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달하는 연말연시 중소기업계 대규모 나눔문화 축제다.

행사에는 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후원한 15만점 상당의 생활용품, 아동도서, 주방용품 등 우수한 제품들이 현장을 가득 채워 풍성한 사랑나눔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눔 페스타 개막식에서는 중소기업 CEO와 업종·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부금 전달과 ▲우원식 국회의장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저명인사 및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애장품 경매를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해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전환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비용이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지원비용으로 이어지는 나눔축제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장애인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 개설

아이디어 나누는 ‘볼드 무브’ 운영
시각·지체 장애인 1기 참가자 모집

LG전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의 일환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LG전자는 장애인이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를 운영한다. 14일부터 19

일까지 시각·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커뮤니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볼드 무브는 ‘용기 있게(Bold) 실행하다(Move)’라는 의미로, 장애인이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변화를 만드는 용기를 갖자는 뜻이다. 참가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3개월동안 제품을 창의적으로 바꾸거나 변경하며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국토요타, 13년째 이어진 ‘이웃사랑’

18톤 김장 김치로 취약계층 온기 전달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3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4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약 13년째 지속하고 있는 ‘2024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 약 300명이 참여했다.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국토요타자

자동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부터 약 300명의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사 임직원들이 동참해 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전국 11개소 복지관 및 ‘안나의 집’에서 김장 김치 약 18톤(약 6140포기)을 담갔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외대-e스포츠협회, 인재양성 협약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12일 서울 캠퍼스 이덕선 회의실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e스포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하대, 개교 70주년 역사 돌아보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13일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토크 “하와이·인하공원”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하대는 총동창회와 함께 하와이·인하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하대가 개교하는 데 누구보다 큰 힘을 보태준 하와이 교포를 기리기 위해서다. /인하대

인사

◆한일홀딩스 ◇한일홀딩스 ▲정길영 상무보 ◇한일시멘트 ▲오해근 전무 ▲전재철 전무 ▲이자규 상무 ▲선영현 상무 ▲김광유 상무보 ◇한일산업 ▲기정훈 상무보 ▲서명은 상무보 ◇한일개발 ▲박태진 상무보

부음

▲안병욱씨 별세, 이택구(화성시 소통행정국장)씨 부부상=14일, 용인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78-20) 301호, 발인 16일, 031-276-4001

오늘의 날씨

11월 15일 (금)
음력 : 10월 15일

수도권 날씨
13~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2 | 해질 / 17:21

연천 11/20

동두천 11/20

가평 10/20

양평 11/19

용인 14/19

평택 11/20

수원 14/19

인천 14/19

파주 10/19

백령도 14/17

서울 13/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G2 환율전쟁과 희생양



자 상 국 역
관망과 훈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를 이끌 ‘무역 차르’로 점찍은 인물이다. USTR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내내 USTR을 이끌었을 정도로 트럼프와는 호흡이 맞다. 트럼프가 이번 집권기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의 역할은 1기 때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1947년생이니 올해 77세이다. 로스쿨을 졸업했고 관직을 맡지 않을 때는 70세가 넘어서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워싱턴 D.C.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변호사이자 협상 전문가로 통상분야의 대표적 ‘매파’로 통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을 압박해 무역적자 감축과 국내산업 보호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을 설계 및 진두지휘했고 세계무역

기기구(WTO)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340억달러의 관세를 선제부과하는 등 대중국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특히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플라자합의를 연상케하는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의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경향과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는 초고율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플라자합의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환율전쟁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때의 경력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그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이다. 그는 30대 중반인 1981년 하원 금융위원회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곧이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USTR 부대표를 지냈다. 무려 40년전에 당시 미국 경제를 추월할 기세였던 일본을 슈퍼 301조로 대응하며 굴복시킨 장본인이다. 이때 미국시장을 휩쓸던 일본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고사위기의 자국내 관련 산업을 지켜냈다는 평을 받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압박이 중

국만 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 식 통상관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를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당으로 여긴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최우선이다. 지난해 444억달러나 되는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주요 타국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쩌면 라이트하이저를 앞세워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을 중국과의 환율전쟁에 앞서 시범케이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세기 이상 통상협상 전문가로 살아온 그가 다시 등판하는 만큼 대어를 잡기 위해 만만 한 상대를 골라 먼저 손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상황은 2019년 1차 대중 무역협상때보다 훨씬 괜찮다. 당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상을 동시 진행했으니 지금은 동아시아 쪽에 전력을 모두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측 입장도 위안화 절상이 현 경제상황에서 나쁘지만 않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경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3%선에 그치는 반면 내수부양이나 외자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를 줄이고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행보가 시급해졌다.

/skc8472@metroseoul.co.kr

‘산업의 쌀’ 철강, 위기감 고조… 정부 팔 걷고 나서야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계가 철강업황 부진과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국내 철강업계 약대산맥인 포스코와 현대제철가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현대제철은 철강업황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경북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전체를 셧다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2공장 근무자들은 회사와 협의를 거

쳐 다른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조624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다. 순손실은 16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포스코는 최근 철강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 노조 리스크 등 잇따른 겹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업황 부진,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 일본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철강 부문에서 포스코 3분기 실적이 매출 9조4790억원, 영업이익 438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39.8% 감소했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할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 업체를 방어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철강은 상황이 다르다. 국내 철강 업계도 미국 수출 물량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철강 쿼터 부과 대상국으로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68만 톤의 철강만 수출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우리 철강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친구와 여행계획이 생긴다. 48년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60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72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4년생 자질한 것에 신경 쓰다 소탐대실하게 된다.



37년생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49년생 늦도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61년생 일이 잘 풀리는듯하다 고인다. 73년생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8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난.



38년생 사소한 씹씹이에도 이해관계가 우선하여 실망. 50년생 건강하게 베풀 능력에 있는 것에 감사. 62년생 태양은 떠 있는데 늦게지 못한다. 74년생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86년생 정확한 일 처리를 위해 항상 문서로 작성.



39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 5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63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얻기 좋은 날. 75년생 상대를 의심부터 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아보라. 87년생 원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40년생 어제의 친구가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한다. 52년생 운기가 좋으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64년생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이니 신중하게. 76년생 친구의 이상에게 감정을 보이다가 체면을 구길 수. 88년생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41년생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기분 좋은 하루. 53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5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한 면에 치중해서 결론 내리지 말도록. 89년생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42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은 꼭 확인. 54년생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하루. 66년생 병도 약도 내 손안에 있다. 78년생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임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된다. 90년생 동업자와 서로 의논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지녀야 이득이다.



4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55년생 당장 성과가 없어도 계속 노력하라. 67년생 머리는 좋아으나 결과는 좋다. 79년생 독서와 직선은 출세와 풍요로운 삶을 기약하는 단초. 91년생 오늘 즐거우니 내일이 기다려진다.



4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56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일을 만들지 마라. 6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당연하다. 80년생 말실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양보. 92년생 약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한다.



45년생 짙은 보라색이 행운을 부른다. 57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69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81년생 깨끗하다고 너무 치우치면 위험이 따르는 게 세상사 이치. 93년생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룬다.



46년생 발전이 없어도 오늘은 현상 유지가 최선. 58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도 유의하라. 70년생 걱정이 해결되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 82년생 사랑을 하려면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94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



47년생 두서없는 행동으로 망파라. 59년생 여행가고자 하는 곳에 도적이 있으니 미리 체크로. 71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83년생 종일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95년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행동해야 결과를 얻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끝없는 욕심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이 있다. 사주에 재물이 넘치는 사람이 있었다. 전문직으로 일을 시작한 젊은 시절부터 상담을 하면서 운세를 자주 묻곤 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법인을 만들어 경영하는 것이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올 사주이기에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보라고 일러줬다. 계획했던 대로 법인을 시작하더니 운세의 흐름을 보면서 사업의 강약을 조절했다. 탁월한 운영 능력에 운세의 도움까지 받아 재물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화목한 가정에 아이들도 잘 자라서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다. 만족하며 살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자기 사주의 관운을 알고 싶다고 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갔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이다. 관운이 아예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뻔한 결말이 보이는데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은 욕심에 끌려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쪽에 인맥이나 기반도 없이 공천을 받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누가 봐도 공천이 어려워 보였는데 혼자만 자신감이 넘쳤다. 결국은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었다. 가족들만 대까지 무시하고 시작한 일이라 집안엔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균열 위기가까지 몰렸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국회의원에게 네 번이나 출마한 사람이 있다. 온 집안에서 다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이십 년에 걸쳐 논팔고 발 팔아 출마한 결과는 비참했다. 그 많던 재산을 거의 다 날렸고 집안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뭘든 시작전 나에게 주어진 운세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저마다 타고나는 기운이 있는데 얻을 수 없는 것에 욕심을 내면 불행을 부른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욕심내지 않는 게 명리학에서 일러주는 인생 현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5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클래스스도쿠110

중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4		
			4		8	5		
8		4						3
5				4			8	2
			7		9			
7	4			8				6
3						2		4
		7	8		5			
		2		6				1

1	6	7	2				5	
			4					1
	4			1				7
		9				5	8	
		2	3		8	6		
	7	8				1		
6			4				7	
9				3				
	4			9	7	3		6

1	2	8	7	9	8	2	9	6
6	9	8	9	2	8	2	1	7
7	9	2	1	2	6	9	8	8
9	8	6	2	8	9	1	7	2
9	7	1	6	8	2	8	2	9
2	8	2	9	7	1	6	8	9
8	1	9	2	9	2	7	6	8
2	9	8	6	7	8	9	1	
8	6	7	8	1	9	9	2	2

9	2	8	2	6	9	1	7	8
9	1	7	9	8	8	2	2	6
8	6	2	2	1	7	9	8	9
8	7	1	6	9	8	2	2	9
6	2	9	8	9	8	2	1	7
2	8	9	7	2	1	6	9	8
2	8	6	1	8	9	7	9	2
1	9	2	8	7	6	8	2	2
7	9	8	8	2	2	9	6	1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2등 샤넬향수 (15명)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돌의 발자국 ‘카이켄 볼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안 상 미 작가의
Why, wine



카이켄의 아이콘 와인 볼더를 만드는 포도밭 전경.



카이켄 볼더. /나라셀라

이런 포도밭은 생전 처음이었다. 포도나무 사이로 온 천지가 돌덩이다. 자갈이나 돌맹이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서 쉬어도 될만한 커다란 바위 말이다. 있는 그대로 바위를 피해 포도나무를 심다보니 일렬로 죽 늘어선 형태가 아니라 제각각이다.

사실 포도밭 가운데 돌의 특징을 지닌 테루아는 많다. 땅 속 아래 깊숙이 암석이 있는 경우 마네랄 느낌이 인상적인 와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갈밭 토양에서는 강인하면서도 복합미가 좋은 와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카이켄의 아이콘 와인 ‘볼더’를 만드는 포도밭은 뭔가

좀 다르다. 땅 속, 아니면 험준한 산 속 깊이나 있을법한 커다란 바위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이 땅에서 자란 포도는 어떤 와인으로 재해석됐을까.

카이켄의 와인메이커 구스타보 오르만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포도를 기르지 않을 정도로 재배하기에 힘든 지형이지만 여기서 나온 포도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며 “볼더는 큰 바

위와 토착 식물들을 없애지 않고 공존하며 포도를 경작하기 때문에 테루아에서 오는 특유의 풍미가 인상적인 와인”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켄은 우리나라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칠레 몬테스가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안데스 산맥의 양편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사는 야생 거위가 원주민어로 ‘카이켄(caiquen)’이다. 야생 거위와 같은 정체성을 상징

삼아 와이너리 이름을 발음하기 쉽게 철자만 약간 바꾼 카이켄(KAIKEN)으로 정했다.

잊혀지기도 힘들 돌천지 포도밭으로 다시 돌아가본다.

이 곳은 원래 강이 흘렀던 곳이다. 강이 범람할 때면 많은 돌과 암석들이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물줄기가 바뀌는 이곳에 그대로 쏟아졌다. 강을 기준으로 북안은 모래나 점토가 쌓였고, 남안은 돌밭이 됐다. 볼더를 만드는 포도밭이 바로 3헥타르 밖에 안되는 그 돌밭이다.

와인 이름 볼더는 이런 테루아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볼더(Boulder)는 영어로 ‘비나 바람에 의해 깎인 커다란 고 둥근 돌덩이’를 뜻한다.

볼더는 아르헨티나 대표품종인 말베크 64%에 카베네 프랑 28%, 뽀피 베르도 8%를 섞어 만든다. 와인 메이커가 어떤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섞은 게 아니다. 돌밭에서 자라고 있는 품

종의 비율을 그대로 쓴 소위 ‘필드(field) 블렌드’다.

좀 더 들여다 보면 환경에 적응 또는 순응한 결과물라고 보면 된다. 말베크는 바위가 많고, 태양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란다. 카베네 프랑과 뽀피 베르도도 환경에 적응해 말베크와 같은 시기에 수확이 가능해졌다. 반면 카베네 소비뇽이나 멀룬은 척박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포도알이 과숙된다. 매우 건조한 이곳에서 장애물 같았던 암석은 아래로 수분을 머금고 있어 포도나무가 암석 주변으로 뿌리를 뻗어내렸다. 이정도면 암석들이 남긴 무계획의 계획인셈이다.

포도밭이 3헥타르 밖에 안되다보니 볼더 생산량도 3000병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적다. 조금씩 따라 한 병을 열 명이 나눠 마신다 해도 전세계에서 볼더를 마실 수 있는 이는 4만명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 빈티지가 내년 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머릿속 피해의식으로 괴롭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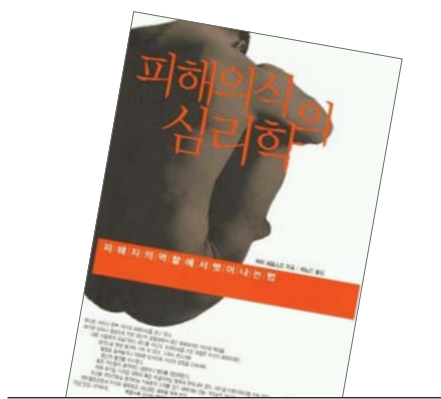
강력 범죄의 상당수가 가해자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다. 그들은 늘 죄 없는 피해자나 불우한 가정환경, 자신을 성심껏 돌봐주지 않은 사회 탓을 한다.

‘피해의식의 심리학’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누구나 머릿속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책에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명백한 재난의 피해자로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불행한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자연재해의 경험에서 가장 놀랍고 인상적이었던 일은 이웃들의 협동심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단기간 내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아끼던 물건을 모두 잃었지만 홍수의 피해보다는 이웃들이 줬던 큰 사랑을 더 많이 언급했다.

저자는 “이미 일어났던 비극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참으로 존경할만했다”면서 “비극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은 아픈 경험을 극복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그러고는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이런 소중한 경험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강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피해의식의 심리학

아아 헤프스트 지음/이노는 옮김/양문

깨닫게 된다”고 밝힌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불쾌한 경험들이 실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며,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책은 강조한다. 고 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고통과 아픔은 흔히 생각하듯 영혼과 정신이 병들었다거나 성격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어한다는 뚜렷한 외침이다.

저자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피해의식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고통과 아픔이 아무런 희망이나 의미도 없이 끔찍하게만 여겨진다”면서 “그렇지라도 미래로 발전하는 씨앗은 어딘가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언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이다”고 말한다.

242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데이비드 벨로스, 알렉산드르 몬테규 지음/이영아 옮김/현암사

책장에 꽂힌 소설과 시, 스마트폰으로 보던 숏츠와 릴스 영상, 길에서 들리는 음악... 우리는 무형 콘텐츠의 파도에 파묻혀 살아간다. 콘텐츠 홍수 시대, 무형의 창작물은 돈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종한다. 이 모든 무형 자산은 누구의 것이며, 수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책을 찍어내게 되면서 출판된 글에 대한 권리는 인쇄업

자가 독점하게 됐다. 18세기 영국은 이들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자에게 주어졌다. 이후 전 세계에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퍼져 나갔다. 저작권이 탄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며 저작권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

404쪽. 2만3000원.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

쑨중싱 지음/박소정 옮김/세종서적

신뢰와 사기는 한 곳 차이이다. 믿음이 있기에 사기가 성립된다. 사기는 ‘믿음’이라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심리적 전술이며, 사기와 믿음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한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거짓말과 사기는 사악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면접 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

만 선택해 말하는 소극적 거짓말부터 각종 이유로 인한 자기기만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거짓말과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책은 사회학·심리학·철학·역사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사기와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며, 신뢰가 사기로 변하는 매커니즘을 밝힌다.

280쪽. 1만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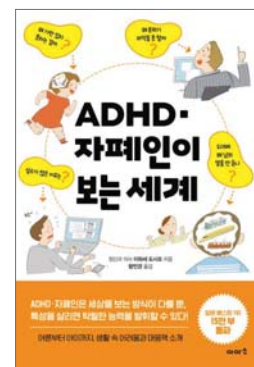
ADHD·자폐인이 보는 세계

이와세 도시오 지음/왕언경 옮김/아사노

상대에게 실례되는 말을 아무런 약의 없이 하거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울어 주변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아이 또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자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30여년간 ADHD, 자폐인들을 치료해온 발달장애 전문의인 저자는 실제 사례를 통해 ‘ADHD·자폐인이 보는

세계’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ASD(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과민한 감각은 예술적 감성으로 승화할 수 있고, 특유의 논리적 사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DHD인은 행동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 창조적인 일을 잘 수행한다. ADHD, 자폐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

196쪽. 1만8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쟁 핑계 안 먹히네...이스라엘 법원, 네타냐후 재판 연기 신청 기각
▲필리핀 정부 “ICC 두테르테에 수배령 내리면 협조”
/사진 뉴시스

▲伊 대통령 ‘내정 간섭’ 일론 머스크에 “상대국 주권 존중해야”
▲일본 정부, 사형제 존폐 논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다”



▲이란 외무 “美와의 갈등 해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마찰 줄여야”
▲트럼프, 대사·중동특사 인선으로 ‘親 이스라엘’ 정책 예고
/사진 뉴시스

회양목·산철쭉 수목 가득 산책로 환상의 숲 테마 ‘백년명원’ 눈길

〈단지 내 공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더샵둔촌포레

정문에 조각상 ‘스틸라이프’ 설치… 흥미유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육생비오톱 조성
석가산·팜가든 등 콘셉트 공간도

최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더샵둔촌포레’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검정
색의 깔끔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됨을 자아냈다.
포스코이앤씨가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과 증축
을 동시에 진행했다.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다.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개시했다. 단지 바로 앞에 선린초, 둔촌중·고
교가 있고 도보권 내에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5호선
둔촌동역이 있다.

인근에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강동구둔촌도서
관, 일자산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최대 14층, 총 8개동 572세대로 신축
3개동은 별도 증축했다.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첫 사례
다.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지상부는 조경공간으로
구성됐다. 새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를 368대
에서 703대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조합원 세대 내부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에서 93
㎡·95㎡로 확장됐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신설하고
알파룸을 포함해 4개의 룸을 마련해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했다.

세대 천장에 설치되는 배관 및 덕트를 우물천장 밖
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적용해 높은 천장고를 확보했
다. 별도증축으로 건립된 일반분양 74세대는 전용 84
㎡, 112㎡로 구성되어 4베이(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 양면개방형 세대로 설계됐다.

단지에는 더샵둔촌포레만의 조경이 눈
에 띄었다. 정문 바로 옆에는 조각
상 ‘스틸라이프(Still Life)’가 입
주민을 반겨준다. 모두에게
친숙한 큐브 형상을 조형적
변화와 반복을 이용해 새
롭게 구상한 작품이다.



단지내 산책로.

/전지원 기자

정문의 녹지 영역을 여러 가능성을 품은 흥미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공간에 경쾌한 리듬감을 부
여했다.

단지 중앙은 회양목과 산철쭉으로 꾸며져 있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다. 옆에 있는 티하우스에선 석
가산을 바라보며 쉴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친화적
인 공간이 많았다.

단지 내 공원 ‘백년명원’의 테마는 아른아른거리는
환상 속 신기루 숲이다. 제주 팽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몽환적인 숲의 정원을 느낄 수 있다.

뒷편에는 육생비오톱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
가는 공간으로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돌무더기, 새집 등과 목련, 팔배나무, 복자기 등 다양
한 식물이 심어져 있다.

윤노리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공간 옆에는 놀이터
‘액티브 그라운드(Active Ground)’가 있다. 귀여운
고양이가 연못 속의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커
다란 고양이를 따라 함께 낚시를 하며 연못 속 친구들
을 만나는 컨셉으로 꾸며져 있다.

‘팜가든’과 함께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펫가
든’도 조성돼 있다. 커뮤니티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
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
을 신설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① 단지내 공원 ‘백년명원’ ② 조각상 ‘스틸라이프’ ③ 육생비오톱
④ 석가산 ⑤ 팜가든.
/전지원 기자



한미약품 3자연합
“전문경영인 선임
그룹 안정화”
L1



Life

삼성
이건희 동행철학
연말까지 이어간다
L2



속 쓰릴때 한 포 쪽~ 국민 속 달래준 ‘주머니 속 위장약’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겔포스’

김승호 명예회장, 액상 약에 영감 받아
1975년, 짜 먹는 위장약 ‘겔포스’ 선택
콜로이드성 겔 성분, 위장 불편함 완화

보령의 자회사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겔포스엠’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쓰린 속을 묵묵히 달래온 위장약이다.

보령 ‘겔포스’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령제약 창업자인 김승호 명예회장은 당시 유럽에서 기존의 알약이나 가루약과는 전혀 다른 현탁액 형태의 위장약을 처음으로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짜 먹는 위장약은 당시 국내에서 전혀 보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 이 경험은 보령이 ‘겔포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보령제약은 1972년 3월 프랑스 제약회사 비오테락스와 기술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후 3년간 기술 도입과 검증 과정을 거쳐 1975년 6월 보령제약은 국산 제품 겔포스를 본격 생산하게 됐다.

보령제약이 겔포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 경기도 안양에 마련했던 2000평 규모의 공장은 당시 단일 제약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첫 해 겔포스 매출은 6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겔포스가 갖춘 생소하지만 우수한 제형의 약효와 편리한 포장 형태는 소비자 신뢰를 쌓으며 발매 5년 만에 매출 10억원을 돌파한다.

겔포스라는 그 이름을 풀어보면, ‘콜로이드성 겔’ 성분과 강력한 힘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스’가 합쳐졌다.

보령에 따르면, 콜로이드는 액체가 유동성을 잃고 고정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콜로이드 입자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입자에 다른 분자나 이온이 붙기가 쉬워 흡착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겔포스는 이러한 콜로이드성 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벽에 강력한 피복 효과를 제공하고, 제산 작용을 통해 위장의 불편함을 완화시켜 준다.

겔포스의 뒤를 이어 2000년 10월 새롭게 선보여진 ‘겔포스엠’은 겔포스의 성분 및 효능·효과를 강화한 제품이다. 보령제약 중앙연구소에서 4년 여의 연구개발과 2년 여의 임상시험 끝에 탄생한 겔포스엠은 위 보호막 형성 작용이 더욱 강력해졌다.

겔포스엠은 겔포스의 주 성분인 인산알루미늄에 수산화마그네슘을 추가한 알루미늄·마그네슘 복합 제산제다. 인산알루미늄 단독 성분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변비나 설사 등의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겔포스엠에는 가스 제거 및 인결핍증 예방 역할을 하는 ‘시메티콘’ 성분이 추가돼 장 내 가스 생성에 따른 불편함 역시 개선됐다. 이러한 조성물들은 모두 특허 등록되어 있어 겔포스엠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산제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물 특허를 보유한 일반의약품이다.

이같은 겔포스엠의 3중 복합 처방은 자극적인 음식, 불규칙한 식사, 카페인, 잦은 음주, 야식 등 생활 양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속쓰림을 겪는 현대인들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이 보령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겔포스엘’은 소화 효능까지 더해진 제품이다. 기존 겔포스엠에 ‘DL-카르니틴염산염’을 추가한 겔포스엠은 소화 불량을 동반한 속쓰림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기전을 갖췄다.

겔포스엠과 겔포스엘로 완성된 겔포스



현재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겔포스엠’과 ‘겔포스엘’



배우 주현영이 ‘짚어서 짜 먹는 위장약’ 겔포스엠을 소개하고 있다.

위 보호막 형성작용 강화한 ‘겔포스엠’
소화불량 동반 속쓰림 개선 ‘겔포스엘’
2가지 제품으로 점유율 꾸준히 확장해

먹기 편한 막대형 패키지로 선호도↑
주현영 모델로 MZ세대 마케팅 강화

브랜드는 꾸준히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의약품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겔포스 브랜드의 매출은 올해 1~11월 전년 동기 대비 9.8% 성장했으며, 지난 5년간 일반의약품 제산제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겔포스엠은 올해부터는 외형 포장도 변신을 거듭했다.

기존 사각 형태의 사면포 패키지에서 후속 제품인 겔포스엘과 같이 절취가 쉽고 찌꺼기 편리한 세로형 막대 포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개봉 입구에 칼선을 넣고, 자르는 방향을 표시하는 등 복용법도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령이 실시한 자체 소비자 조사에서도 참여자의 92.5%가 사면포 형태보다 막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면포 형태의 제품은 모서리가 날카롭고 입이 닿는 면적이 넓어 입 주변이 찢릴 수 있고 내용물을 남김 없이 찌꺼기 어려웠다. 새로워진 막대 형태는 한번에 섭취가 가능하다.

오는 2025년이면 발매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겔포스는 제2의 도약을 목표로 젊은 소비자층과 발맞춘 다양한 마케팅도 전개한다.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주현영의 젊고 활동적인 사회초년생 이미지를 통해 MZ세대 소비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겔포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겔포스는 지금까지 겔포스를 선택해 준 중장년층 고객들과는 신뢰를 바탕으로 뛰어난 효능과 복용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① 1970년대 다양한 패키지로 생산된 겔포스.



② 1983년 ‘수사반장’ 배우들이 출연한 겔포스 광고.



③ 2000년 10월 출시된 ‘겔포스엠’.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BO, 보은 야구센터 야구장 1면 추가 건립…2025년 준공
▲프로농구 KCC, 필리핀 메달코에 1점 차 석패…EASL 2연패 /사진 뉴시스

▲‘24안타’ 네덜란드, 푸에르토리코에 20-8 콜드승…미국도 승리 추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스포츠진흥 대상서 프로스포츠 스페셜 대상



▲프로축구연맹, ‘K리그 그라운드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실’ 조성…디지털 전시 눈길 /사진 뉴시스